

기 자 회 견 문

부산일보 김진수 사장의 ‘건설사와의 수상한 거래 의혹’이 보도된 지 두 달이 지났다.

하지만 김 사장은 이에 대해 아무런 입장 표명도 하지 않고 있다. 사장은 “노조가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고 하니 그 결과를 지켜보자”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것이 무슨 말인가. 무혐의를 기대하고 있다는 이야기인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위법행위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사장 자리를 지키고 있겠다는 말 아닌가. 후안무치의 끝판왕이다.

1만 5천여 언론노동자들의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아놓은 죄는 어찌할 것인가. 김진수 사장은 경찰 수사 결과를 기다릴 것도 없이 조속한 시일 내에 사죄하고 물러나라.

김 사장이 저렇게 버티고 있는 것은 정수장학회 때문이다. 자신을 선임한 정수장학회가 가만히 있으니 뻔뻔스럽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다.

정수장학회의 책임도 크다. 정수장학회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어떠한 입장도 표명하지 않았다. 자신들이 선임한 사장이 건설사와 수상한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데도 어떠한 조치도 없다. 수사권도 없는, 수박 겉핥기식의 자체 감사만 진행한 채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

1만 5천여 언론노동자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언론노동자의 명예를 실추시킨 김진수 사장은 즉각 사퇴하라

하나, 부도덕한 사장을 감싸고 드는 정수장학회는 김진수를 즉각 해임하라.

2021년 11월 11일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신문통신노조협의회, 지역신문노조협의회, 언론노조 부산일보지부, 언론공공성지킴이부산연대